

# 예술 작품을 흠뻑다 '많이' ... 단지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예술도둑

마이클 핀클 지음, 염지선 옮김

'프랑스 왕녀 마들렌', '클레브의 시빌', '월송이들의 축제', '가을의 우화', '잡자는 목동', '여인과 군인', '마을 입구'...

위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얼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미술 회화 작품이라는 것밖에는 공통 분모가 없다.

이들 작품은 박물관, 미술관에서 도난을 당했던 유명한 그림들이다. 모두 동일한 이의 소행이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 작품을 훔친 도둑이 있다. 스테판 브라이트비저는 유럽에서 200회 300점 이상을 훔친 세기의 도둑이다. 가치로 환산했을 때 2조 원에 달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름다움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욕망의 근원은 무엇일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자 뉴욕, 워싱턴포스트, 리터러리 허브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예술도둑'은 흥미로운 논픽션이다. 현대의 도둑의 뒤를 추



적한다는 점에서 추리소설의 느낌도 준다.

작가는 미국을 대표하는 저널리스트 마이클 핀클이다. 사회와 동떨어진 채 27년 동안 혼자 살아온 인물을 추적한 '숲속의 은둔자'로 세계에 이름을 알렸던 작가다. 경험한 실제 사건을 토대로 완성한 '트루 스토리'는 2005년 에드거상 최우수 논픽션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정재승 뇌과학자는 '예술도둑'에 대해 "예술에 대한 인간의 내밀한 욕망을 가장 비뚤어진 방식으로 탐해온 예술 도둑을 통해 미학과 윤리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책"이라며 "근래에 읽은 가장 흥미로운 예술 서적이다"고 평한다. 윌스트리트 저널은 "책을 읽는 동안 범죄자를 향



스위스 시옹 발레 역사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장-밥티스티 이사비의 '뱀뱃갑'.

한 동정심과 혐오감이 공존한다"며 "핀클은 그야말로 이야기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잡으면 내려놓기 힘든 책이다"고 상찬했다.

저자는 이번 책을 쓰기 위해 10년 가까운 시간 스테판 브라이트비저 이야기를 수집했다. 그리고 2012년 '예술도둑의 고백'을 발간한 출판사를 통해 브라이트비저에게 사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후 2년이 넘어 답장을 받았고 첫 편지를 보내고 4년이 흐른 2017년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

두 사람 만남은 조심스러웠고, 처음 브라이트비저는 사적인 이야기를 꺼려했다. 점차 사이가 편해진 후,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수용됐다. 인터뷰는 저자가 묵고 있는 호텔방에서 진행됐다.

두 사람은 세 번에 걸쳐 만났으며 40여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 사이 브라이트비저가 물건을 훔쳤던 박물관, 교회를 찾아가거나 산책도 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저자는 '예술, 범죄,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위험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논픽션이 완결되기까지는 주인공 외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 폭넓은 연구와 꼼꼼한 취재 등이 토대가 됐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범죄 사건은 구성이 잘 된 한편의 이야기로 전이됐다.

저자는 브라이트비저의 어린 시절부터 그 원인을 찾는다. 아이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유년기를 보냈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박물관에서 혼자 노는 것이 좋았다. 그림을 비롯해 조각상, 저마다 색채로 빛나는 유물은 그의 내면을 흔들었다.



스테판 브라이트비저가 프랑스 사르트르 미술관에서 훔친 프랑수아 부세 작 '잡자는 목동'.

그는 비저를 일반적인 도둑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감상적이고 날카로운 안목을 지닌 진정한 미술품 수집가"로 불리기를 원했다. 아름다움을 숭배하기에 그는 절도 행위에 대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갖고 싶어도 대부분 선을 넘지 않은데 비해 그는 미에 대한 소유를 추구했다.

1972년 2월 벨기에 '루벤스의 집'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은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맞물려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그는 돈 때문에 흠뻑지도 않았다. 단 하나 모든 시작은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생각의힘> 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랑 후에 오는 것들(2권)

공지영, 츠지 히토나리 지음

한국과 일본 서로 다른 국적의 남녀가 있다. 일본 유학 중이던 홍이라는 여성은 이노카시라 공원 호수 주변에서 일본 남자 준고를 만난다. 준고는 실연의 상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려 사랑에 빠져든다. 그러나 홍은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홍은 집을 싸들고 홍의 집으로 들어가고...

지난 2005년 연재돼 2006년 단행본으로 발간돼 베스트셀러로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소설이 있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여자 주인공 한국 여성과 남자 주인공 일본 남성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공지영 작가와 츠지 히토나리 작가가 공동 집필했다. 섬세하고 감성적인 문체로 많은 베스트셀러를 펴냈던 공 작가와 작가, 영화감독으로 활동 중인 츠지 작가의 공동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에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개정판으로 돌아온 소설은 드라마로 각색돼 조만간 쿠팡플레이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방영될 예정이다. 당초 이 작품은 서울과 파리에 있는 두 작가가 5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메일을 매개로 일간지 신문에 연재했다. 당시 제목은 '먼 하늘 가까운 바다'였다.

소설은 문화와 언어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남성과 여성이라는 원초적인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 등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다뤘다. 가깝고도 먼 두 나라인 한국과 일본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보편적으로 확대해볼 수 있는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다.

심리적으로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두 나라,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한국과 일본의 두 남녀가 풀어나가는 사랑 이야기는 언젠가는 두 나라가 지향해야 할 관점 등을 보여준다 하겠다.

<소담출판사> 각 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예술가의 창조적 진실

마크 로스코 지음, 김주영 옮김

큰 캔버스를 가득 채운 레드, 오렌지, 바이올렛... 강렬한 컬러를 사용했지만 표현은 단순하다. 추상 표현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이 '아무것도 없는' 그림에 사람들은 감동을 한다. 그림 속의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일까.

20세기 최고의 현대 미술가로 꼽히는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그림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책 '예술가의 창조적 진실'이 출간됐다.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를 수십 년이 지난 뒤 우연히 발견한 아들 크리스토퍼 로스코가 엮은 것이다.

책은 로스코가 생전에 관심을 가졌던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을 보여준다. 예술가의 딜레마, 조형 과정의 지속성, 공간, 아름다움, 자연주의, 신화, 토착 미술 등 예술 작품의 외면과 내면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에 대해 솔직하게 쓰고 있다.

로스코의 그림은 생전에도 크게 명성을 떨쳤다. '시그넬 프로젝트'에 3만5000달러라는 파격적인 금액의 의뢰를 받을 정도로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은 화가였다. 개인전을 열고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학생을 가르치고 대중과 소통해오던 그는 1970년 어느 날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추악한 분쟁이 시작되었고 '로스코가 쓴 원고가 있다'는 소문은 분쟁의 쟁점이 되었다. 아들 크리스토퍼 로스코는 '시작하는 글'에서 책의 원고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과정과 책으로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던 이유, 책의 출간에 대한 고민, 출간을 결심한 후 스스로 원고를 읽고 글의 순서를 정하면서 예술가인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을 밝힌다. <위덤덤하우스> 2만6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제4의 대전환

닐 하우 지음, 박여진 옮김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강력한 패턴이 있다"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패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 지난 500여 년간 80년 주기로 반복된 사건들은 향후 10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파악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세계적인 세대 이론가이자 역사·경제학자인 닐 하우가 최근 '제4의 대전환'을 펴냈다. MZ세대 이전의 'M세대',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의 창시자인 그는 '세대', '13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 등을 집필하며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사회 갈등 및 위기를 분석해 왔다.

책에 따르면 현대사는 인간의 일생처럼 80~100년을 주기로 진자운동을 한다. 이 주기는 네 개의 전환기인 '고조기-각성기-해체기-위기'로 구성되는데 늘 같은 순서로 인류에게 도래했다. 그는 현시점을 '제4의 전환기'인 위기 시대로 분석한다. 시대적 징후들을 통해 예측한 위기는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를 촉발한 뒤 계절처럼 순환해 '고조기'로 돌아갈 것이라 주장한다.

그 일례로 미국이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독립전쟁(1770), 남북전쟁(1860), 대공황과 세계대전(1930-40) 등을 거쳤고, 이 혼란이 사회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논지를 펴낸다. 근래 전 지구에 영향을 끼쳤던 팬데믹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부상 등은 지금이 바로 네 번째 전환기임을 실감하게 한다.

책은 세계적인 역사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물론 에이미 추아, 토니 로빈스 등의 찬사를 받으며 오랜 시간 아마존 역사 분야에서 1위를 지켰다. 방대한 역사적 지식과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과거사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한국경제신문> 4만3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